

주소 서울시 응진구 소월로38길 30-8
주차 밸렛파킹 가능

BOOKMARK

테라로사 북마크

남산 소월길에 테라로사가 문을 엽니다.
5월에는 꽃을 달아드리고, 6월에는 1+1을
하려고요. 테라로사의 바쁜 초여름이
시작됩니다.

5월에는 꽃, 6월에는 1+1 이벤트

감사를 전하고 싶은 5월, 드립백과 원두 브라질 내셔널 25위 수상작을 구매하면 꽃을 달아드리는 작은 행사를 마련했다. 모든 매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특히 온라인은 무료 배송까지 스페셜 서비스 중이다. 선물하기 좋은 커피 넘버원으로 자리로 굳힌 드립백의 경우, 이달에는 에티오피아 예기체페와 온두라스 마리&모이, 브라질 내셔널 수상작으로 구성하였다. 6월 1일부터는 모두가 기다리는 원두 1+1 행사가 찾아간다. 맛있는 리스트로 캠백 순! www.terarosa.com



서종점, 와인 & 커피 마켓

5월 마지막 주말, 서종점에서 작은 마켓이 열린다. 테라로사 이웃인 와인숍 '셀러비'가 준비한 행사. 5개 와인 수입사의 와인을, 또 테라로사 원두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빅 청소이다. 이웃한 '55도, 포마이도터'도 와인에 잘 어울리는 심플 스낵을 들고 나온다 하니 맛있는 와인 시음에 커피에 음식까지, 작지만 삼박자를 갖췄다. 여기에 재즈 연주까지 걸들여진다고. 근처 리버 마켓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토종콩 넣은 샐러드 & 초여름 디저트

테라로사 키친과 베이커리는 싱그러움이 필요한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재료를 찾아 새롭게 요리하는 재미에 폭 빠졌다. 광화문 키친팀은 최근 벌꿀한 토종콩 3형제 '오리알태콩, 푸르메콩, 선비콩'에 초리조, 적양파를 넣어 상큼하게 맛을 낸 콩 샐러드를 자주 내고 있다. 강릉에는 미나리 파스타와 15금 샐러드인 '칠리&칩'이 준비되었다. 디저트로는 테라로사 시그너처인 티라미수의 여름 버전과 망고 & 패션푸르츠 판나코타를 맛볼 수 있다.



TERAROSA

www.terarosa.com

No.27

테라로사 뉴스레터 2017년 5~6월호 통권 제27호 발행인 김용덕 편집·디자인 테라로사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테라로사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17 (주)한산 테라로사



르완다 마햄베 비노고초등학교 인생 첫 교복, 첫 피아노

TERAROSA COFFEE ROAD

테라로사닷컴은 지난 1월 '르완다 저스틴 원두 1봉을 구입하면 르완다 어린이에게 교복을 기부한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개월이 흘러 지난 4월 11일, 비노고초등학교 전교생이 인생 첫 교복을 입고, 피아니스트 손열음 씨가 연주하는 인생 첫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





Thanks to

이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치기까지 여러 사람의 숨은 노고가 있었다. 가장 먼저 저스틴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고, 또 교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원과 옷감을 수급하는 데 열심 제치고 나서주었다. 키갈리에서 마행버끼지 열악한 도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안전하게 옮겨주었다. 그리고 이르세나, 저스틴의 친구자스터박스 농업 지도자인 그는 테라로사와 마행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번 콘서트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업, 하가 문제 등을 자신의 일처럼 처리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비노고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새 옷과 피아노, 한국에서 온 낯선 사람들로 인해 흥분한 아이들의 통솔을 맡아 행사가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선생님이 마지막 말씀이 기슴을 썼다. “여러분이 다시 오시리라 확신합니다. 또 뵙지요.”

교복 한 벌 제작비 7달러, 전교생 891명

로완다 마행버 마을의 커피조합장 ‘저스틴’, 그는 지난 5년 간 테라로사를 통해 한국에 고품질 르완다 커피 맛을 알려온 인물이자(어느새 팬도 생겼다) 이번 교복 프로젝트의 아이디어 메이커이다. 우리는 마행버가 그간 생산해낸 커피의 품질과 양적 확산에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기에 그들의 노고에 무언가 보답하고 싶었다. 저스틴은 ‘부모와 아이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돋고 싶다’며 교복을 제안했다. 그렇다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 마행버 커피를 좋아하는 고객과의 접점을 찾기로 하고, 1월 한 달간 마행버 햅커피를 판매하면서 교복 기금을 마련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지난 2월 로완다에서 그를 만났을 때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르완

인생 첫 피아노 소리

태어나 처음으로 피아노 소리를 들었던 때를 기억하는가? 혹은 최근에 들은 피아노 소리는? 아마 쉽게 답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릴 가나 피아노를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에. 너도나도 피아노학원을 다녔던 시절이 있고 커피숍에 가면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는 피아노곡을 흔히 들을 수 있으며, 심지어 어떤 백화점 화장실은 꼭 피아노 버전의 뉴에이지 음악을 고집하기도 한다. 르완다로 떠나기 전, 공연 기획을 맡은 우리 예스엠아트 팀은 이 행사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쉬이 감을 잡지 못했다.

두 번의 환승, 20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르완다. 목적지인 마행버는 수도 카갈리와는 매우 달랐다. 고불꼬불 비포장도로를 오래 걸어가다 보면 언덕에 학교가 하나 나오고,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이 진행된다. TV는 마을 중심에 있는 슈퍼마켓에 한 대가 있다고 한다. 저녁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면 마을 사람들

이 모여서 함께 시청을 한다단다. 일주일에 두 번씩 장이 서고, 그 작은 올타리 안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마을이 바로 마행버였다.

아이들이 인생에서 첫 피아노 소리를 듣는 날, 어떤 곡을 들려줘야 할지 피아니스트 손열음 씨는 행사 시작 전까지 고민이 많았다. 어떤 곡이 가장 쉽고 재미있게 들릴지, 아이들 음악책에는 어떤 노래가 실려 있는지, 영화나 연주회를 보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무언가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있는지 궁금했다. 후보로 10곡이 넘게 꼽았지만 직접 연주해보지 않고는 모를 일이었다. 결국 손열음 씨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가장 좋아했던 곡들

을 골랐다. 지루한 손가락 트레이닝을 뒤로하고 몰래 멀친 클래식 명곡집, 그 곡들을 연주할 때 얼마나 좋았던지 그때 그 행복을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스칼라티의 ‘소나타’,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골랐다. 그리고 르완다 제노사이드를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리스트의 ‘위로’도 넣었다.

햇볕이 뜨거운 날, 비노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작은 콘서트가 시작되었다. 교장 선생님이 연주자를 소개하는 동안 아이들은 피아노보다도 동양인 여자를 그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엘리제를 위하여’가 스피커를 통해 아이들의 귓가에 닿자, 풀밭에 앉아 있던 아이들이 피아노 가까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피아노 건반 위를 가로지르는 손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진 아이들, 조금이라고 가까이 보려고 피아노 앞으로 몰려든 아이들의 표정은 ‘감동’보다는 ‘충격’에 가까웠다. ‘검고 흰 막대를 놀려서 소리가 나는구나’를 깨닫기까지 한참이 걸린 듯했다.

이날의 작은 연주회로 인해 아이들이 피아노와 문화에 대한 흥미가 생겼을까? 당장은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작은 업라이트 피아노를 두고 앉을 뿐이지만, 어떤 아이는 이날을 계기로 새로운 꿈을 꾸지도 모르겠다. 또 피아노 반주가 생긴 음악 시간을 행복해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먼 훗날 ‘신기함’보다 ‘친근함’으로 피아노를 바라볼 아이들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마지막 곡을 연주하기 전 손열음 씨는 말했다. “다음에 한 명이라도 나와 함께 피아노를 칠 수 있으면 좋겠어!” 마행버에 올려 펴질 최초의 연탄곡으로 ‘첫가락행진곡’이 어떨까?

글 이윤선(테라로사), 손재은(예스엠아트)



Behind Story

테라로사는 지난해 12월 고려제강, 에스엠아트와 함께 피아니스트 손열음 씨의 작은 콘서트를 열었다. 그리고 입장권 수익금으로 르완다 마행버 지역 비노고초등학교에 피아노를 마련해주기도 했다. 한국산 피아노를 가져와 살았지만 통관과 운송 문제로 르완다 현지에서 구입하기로 했고(중국 음식점에서 피아노를 찾기 때문에 피아노가 굉장히 보편화된 줄 알았다) 현지 친구들로부터 ‘걱정 말라’는 답변도 받았다. 친구를 따라 피아노는 파는 곳을 찾았다. 그런데 전시장이 아닌 어두운 창고다. 수백 대의 중고 디자일 피아노를 가리기며 꿀리보라는 것이다. 입소사. 그들은 어쿠스틱 피아노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 수소문한 끝에 일본학교에 피아노 3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지만 너무 오래되어 소리가 나지 않는 건반도 있었다. 지루하기라도 하는 심정으로 피아노를 처음 봤던 중국 음식점으로 갔다. 어디서 샀는지 물으니 슈퍼마켓이라는 게 아닌가. 음식점 주인이 운영하는 아래 슈퍼마켓에 가니 이제 웬일. 정말 가정용 새 피아노가 24씩이나 있었다. 그다음 난제는 이송. 후일답을 들으니 슈퍼마켓은 마행버까지 배달을 할 수 없어 저스틴이 결국 자기 차로 피아노를 옮겼단다. 피아노를 신는 데만 10명이 동원되었고, 비포장도로를 무사히 지나가 위해 친구들을 피아노와 함께 트럭에 앉혀 5시간을 달렸다는 한다. 꼭 어쿠스틱 피아노여야 했나고? 마행버는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일 제품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아노는 그렇게 비노고 아이들에게 전달되었다.





Roaster's 3

로스팅, 컬러로 말하다

커피 제조에도 팬톤 같은 색채 언어가 있다. 색은 로스터에게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주며, 또 소비자에게는 로스팅 정도를 설명해주는 메신저 역할도 한다.

팬톤Pantone에서 올해의 컬러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Greener'를 선정했다. 팬톤은 1963년 미국에서 시작한 색채연구소이자 색상회사이다. 당시만 해도 색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어 '파란색'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파란색을 사용하여 혼선이 많은 때였다. 팬톤은 수많은 색에 고유번호를 붙여 표준화된 컬러 매칭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는 '가장 과학적인 색채 언어'라 불리며 패션, 인테리어, 인쇄, 출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되었다. 커피 제조에도 팬톤 같은 색채 언어가 있다.

로스팅 컬러 분석, 색상판부터 색도계까지

커피를 볶기 시작하면 처음에 초록색이었던 생두는 노란색에서 밝은 갈색으로, 그리고 점점 더 짙은 갈색으로 변해간다. 여기서 더 볶으면 일명 '다크 로스트'까지 진행되고 결국 탄화가 일어나 점계 변한다. 커피에 대한 체계가 잡히기 전에는 로스팅 단계마다 변화하는 색에 대한 명칭이나 정의가 일정치 않아서 국가마다, 지역마다, 또 로스터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팬톤처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로스팅 컬러를 분류하는 작업들이 이뤄졌고, 스페셜티커피협회SCA가 만든 'Agtron Roast Color Kit' 같은 종이 색상판이 등장했다. 이 제품은 커피색을 8개의 색상판으로 표현하였는데 '매우 밝음 #95'부터 '매우 어두움 #25'까지 단계별로 10%씩 색에 차이를 두었다. 색상판은 육안으로 쉽게 커피색을 구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채광이나 조명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이는 단점이 있어 정확한 색 구별이 어렵다. 이후 커피 색도계라 불리는 좀 더 정확한 측정 장비들이 개발되었다. 'Agtron, Color Track, Lighttells CM-100, Javalytics, Colorette' 등의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으며, 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Agtron M-Basic II' 모델이다.

애그트론은 미국 애그트론 사에서 만든 분광 색도계다. 커피에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 적외선을 쏘아 그 파장의 세기를 측정하여 색의 좌표를 읽은 다음 수치화하여 보여주는 기구이다. 대신 한 번 측정하여 값을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측정하여 일정하게 나오는 값을 그 커피의 색상 값으로 여긴다. 원두와 분쇄한 커피에 모두 사용 가능하며 사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결과가 정확하여 커피 업계에서는 로스팅 정도를 분류하는 표준용어로 자리 잡았다. 단, 애그트론 매뉴얼을 보면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다. 측정할 때의 샘플 온도, 분쇄한 원두의 입자 크기, 로스팅 후 경과한 시간 등이다. 예를 들면 원두를 분쇄할 때 입자 크기가 커지면 빛이 반사되는 면적이 넓어져서 색상이 밝게 측정될 수 있다. 따라서 품질 관리면에서 정확하고 유의미한 애그트론 수치를 얻기 위해서는 매번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

애그트론 같은 색 측정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폭넓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된다. 식품만 하더

라도 그 사용 범위가 매우 넓은데, 그 대표적인 예가 감자칩이다. 어떤 색이 날 때까지 튀겨야 타지 않고 맛있는 감자칩이 되느냐, 그 레시피를 잡을 때도 색도계를 이용한다. 이처럼 팬톤의 색상에 대한 정의는 디자인 업계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획기적인 선을 그었다. 그럼, 커피로스팅에서 적절한 색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커피색을 일정하게 맞추면 향상 같은 맛이 나올까? 로스팅 컬러에 따라 향과 맛의 발현은 어떻게 달라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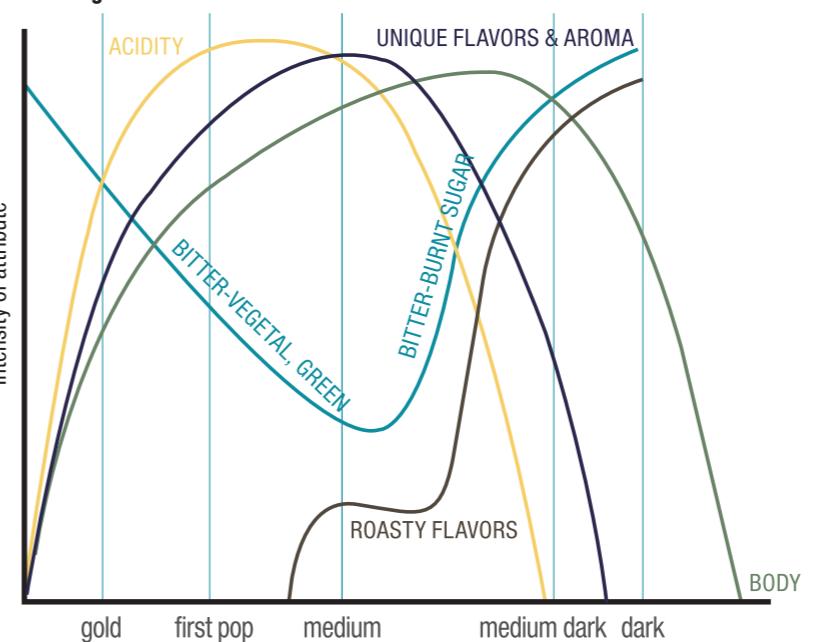
색이 말해주는 맛

이 그래프는 로스팅이 진행되는 동안 커피 향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표시한 것이다. 신맛Acidity, 고유한 풍미Unique Flavor & Aroma, 쓴맛Bitter, 볶은 풍미Roasty Flavors, 바디Body 요소는 발현 시점에 차이가 있다. 로스팅이 골드 단계, 즉 초록색이었던 생두가 습기 브라우닝과 마이아르 반응으로 노란빛을 띠기 시작하면 서서히 커피 풍미가 발현되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맛은 '신맛'이다. 신맛은 1차 팝 단계에서 최대로 발현되었다가 미디엄을 지난 후부터 급격하게 사라진다. '고유한 풍미'는 신맛에 비해 진행 속도가 늦고 미디엄 다크 단계를 지나며 사라진다. '바디'는 흔히 커피가 다크할수록 많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바. 바디도 미디엄 다크에서 최대치를 이뤘다가 이후부터는 점차 소실된다. 커피에 열이 계속 가해지면 결국 탄화가 일어나며 쓴맛과 볶은 풍미가 발생하는데, 이는 미디엄 다크부터 조금씩 나타나 마지막 다크에서 정점을 이룬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우리는 커피를 볶는 동안 일어나는 색의 변화를 통해 그 진행 상황을 짐작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로스팅을 언제 멈추는 게 좋을지 예측할 수 있다.

그럼 색만 잘 맞추면 원하는 커피 풍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일까? 다음 호에서는 커피가 품고 있는 향미를 이끌어낼 로스팅 프로파일을 살펴보도록 하자. Ⓜ

글 김경진(로스터)

© Paul Songer



비엔나의 계오르그 플쉬츠기 동상. 오스만 제국이 전쟁에서 패배 두고간 커피 보급품을 가져다 터키식 복장을 입고 터키식으로 내렸다. 비엔나를 커피 도시로 이끈 인물.



HISTORICAL JOURNAL

바리스타들의 ドレス 코드

바리스타들의 패션이 요즘 꽤나 진보적이다. SNS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힙한 패션, 반듯하게 탄 가르마, 소매 사이로 보이로 타투... 어느새 바리스타 스타일이 그 카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치가 되고 있다. 역사 속 바리스타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바리스타는 본래 바텐더를 뜻하는 이탈리아 말이었다. 바에서 각종 음료를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바리스타는 커피를 만드는 사람'으로 의미가 축소되어 확산되었다. 이는 스타벅스의 공이 크다.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에서 사업 영감을 얻었던 스타벅스는 그 단어를 미국으로 들여와 자신들의 매장에서 커피를 만들어줄 스태프들을 바리스타라 불렀다. 스타벅스가 국경을 넘기 시작하면서 바리스타는 전 세계적으로 커피숍 종사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커피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달라지면서 바리스타들의 패션도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16년 7월 스타벅스가 발표한 'ドレス 코드' 자료를 보자. '우리는 여러분이 위생적이고 단정하며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동시에 개개인으로 빛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표본이 되었던 앞치마, 흰색/검은색 폴로 셔츠, 캡 모자' 유니폼에서 벗어나 이제 바리스타 개개인에게 감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것이다. 심지어 타투도, 목과 얼굴을 빼나며 지 신체 부위에는 허용되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캐나다 대표인 로산 윌리엄스Rossann Williams는 "직원들의 요구에 응답한 것"이라고 말한다. 대신 드레스 코드 북은 15페이지에 걸쳐 그들의 아이콘인 초록색 앞치마와 잘 어울리는 색상, 재질, 패턴이 무엇인지, 또 안 어울리는 것은 무엇이지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하의도 허용의 폭이 넓어졌고 머리도 부분 염색이 허용되었다. 단, 식품 안전을 위하여 전체 염색과 헤어 스프레이 및 무스 사용은 금하고 있다. 수염은 길기도 좋으나 단정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한쪽 귀에 귀고리 두

개 이상, 목걸이, 주얼리, 시계 착용은 금지된다. 이는 모두 식품위생법과 관련이 있다. 바리스타의 옷차림은 이처럼 단순한 복장을 넘어 식품위생을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식품위생법도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해 바리스타의 위생모 착용을 강조하고 있다.

스타벅스의 이러한 변화는 지금 바리스타라는 직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이다. 미국 커피 시장은 2000년대 초반 제3의 물결이 본격화되면서 '스페셜티 커피', 농장 직거래, 프레시한 로스팅, 바리스타 등이 키워드가 되었고, 커피에 숨어 있는 가치를 끌어냈다. 그에 따라 커피숍은 자유로운 멋쟁이들이 모여 일하는 곳이 되었고, 바리스타는 '힙'한 복장으로 일할 수 있는 직군으로 떠올랐다. 매머드급 데치를 지닌 스타벅스도 이제 늦게나마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 속 바리스타 복장

커피 음용 역사는 500년이 훌쩍 넘었다. 시대별, 국가별로 커피숍, 커피를 마시는 사람, 커피를 파는 사람 등을 그린 다양한 사료들이 남아 있다. 커피숍은 이슬람권에서 태동하였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멘을 거쳐 아랍으로 퍼져나간 커피는 처음에는 이슬람 수도승들이 즐겨 마셨으나 점차 모스크에 모여 함께 즐기는 일상 음료로 급부상했다. 1554년 오스만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에 커피 하우스가 생겼다. 여인숙을 겸하며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주고받고 도박, 춤, 노래 등을 즐기던 유혹 장소였다. 미소년들이 커피를 제조 및 서브하고 어후를 돋우는 역할도 맡았다. 더블린 체스터 비터 도서관이 소장한 당시 그림을 보면 손님들은 웃것이 없는 서츠에 긴 로브, 긴 조끼나 긴 코트를 걸치고 있다. 빨간 모자를 쓴 바리스타들이 손님과 다른 옷차림을 하고 커피를 서브하는데, 춤을 추는 동료와 같은 패턴의 드레스 혹은 앞치마를 입고 있다. 또 다른 그림에서는 커피를 내릴 때의 열기 때문에 팔이 다드려난 민소매를 입은 이도 볼 수 있다.

위는 파리 길거리에서 커피 파는 여인을 그린 판화. 왼쪽은 영국의 커피 하우스, 누구나 빠져나면 커피를 마실 수 있어 남성들로 가득했다. 커피를 끓이는 사람과 서브하는 사람의 옷차림이 사뭇 다른 게 눈에 띈다. 오른쪽은 이집트 카이로의 커피 하우스(1884). 바리스타와 손님의 복장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스타벅스 창업자들, 서츠에 넥타이, 앞치마를 맨, 당시로는 파격적인 의상을 선보였다.



고 터키식 커피를 냈다. 영국과 파리에 정착한 커피는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음료였다. 파리 여성의 일상복을 입고 커피를 파는 편화도 남아 있다. 1689년 파리에 지금도 현존하는 카페 '르 프로코포'가 문을 열었다. 예술가들과 상류층들이 모이는 곳이었던 만큼 바리스타들은 수트에 보타이를 매고 앞치마를 둘렀다. 이 옷차림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카페 '플로리안' (1720년 개업)처럼 유서 깊은 카페들은 오늘날에도 바리스타들이 수트를 말끔하게 갖춰 입는다. 바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바에 선 채로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가는 손님들을 배웅한다. 나이 지긋한 중년 남성 바리스타들이 많은 것도 특징적이다. 미국은 1960~70년대 피츠 커피 스타벅스를 필두로 새로운 '제3의 공간'이라는 커피숍 문화가 탄생했다. 서츠에 넥타이, 앞치마를 입어 당시로는 파격적인 의상을 선보였다.

다. 그런데 1884년 프랑스의 장 레옹 제롬이 그린 이집트 카이로의 커피 하우스 그림에서는 바리스타가 손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복장을 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오스만 제국이 유럽 정복에 나서면서 음료는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1683년 오스만 군대가 전쟁에 패하여 비엔나에 보급품인 커피를 남겨두고 퇴각하였다. 전쟁에서 활약했던 게오르크 콜쉬키는 그 커피를 가져다 '파란 병'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오픈했는데, 터키 복장을 입

2000년대 들어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카페들은 통일된 복장이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을 살린 자유로운 복장을 입는다. 앞치마를 매지 않는 곳도 있으며 요즘 힙하다는 패션과 타투로 한껏 멋을 낸 바리스타들도 카페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바리스타의 드레스 코드는 단순한 복장을 넘어 커피의 변천과 사람들의 변천, 특히 이 직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도구가 되었다. Ⓜ

글 김민선(기획)

CULTURE

올림픽 1교시, 교양시간

Originated in Gangneung!
테라로사가 2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소식을 함께 전하려 한다. 응원을 담아서.



1924년 프랑스 샘모니에서 열린 제1회 동계올림픽. 컬링 경기가 한창이다. © Getty Image

더 젊고 다이나믹한 동계올림픽 신규 종목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더 젊고 다이나믹해질 전망이다. 평창에서 데뷔한 새로운 올림픽 종목, 올림픽 신규 종목은 '청소년 흥미 유발, 대중 대상 매력도, 가치 증진, 양성 평등, 경기 및 참여 가능 선수 수에 대한 영향, 시설과 운영비용 및 복합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IOC는 2014년 국제연맹들로부터 17개 종목을 제안 받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했다. 조직위원회는 '추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기가 높아 관중 동원에 유리한 종목을 우선 고려하자'고 IOC에 회신하였는데, 그 결과 '알파인스키 국가별 이벤트, 스노보드 빅에어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매스 스타트 남녀, 남녀 혼성 컬링' 등 6개 종목을 추가해 동계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 수가 100개를 넘게 되었다.

설원의 서커스 스노보드 빅에어 Snowboard Big Air

2009년 평화문광장에 세워졌던 높이 30m, 길이 100m의 스노보드 점프대를 기억하는가? 빅에어 월드컵 기간 동안 선수들이 펼친 환상적인 개인기는 길 거둔 시민들의 박수를 염미 세웠다. 그 빅에어가 올림픽 종목이 되었다. 일반 길을 10층 높이 점프대에서 엄청난 속도로 도약해 공중에서 피포먼스를 선보이는 종목으로, 점프, 회전, 착지, 비거리 등을 거두게 된다.

보다 치열하게 스피드스케이팅 매스 스타트 Speed Skating Mass Start

신규 종목 중 가장 관중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소트트랙처럼 여러 선수가 동시에 출발해 16바퀴 6400m를 달리 순위를 가리는데, 레인 구분이 있는 게 특징이다. 여러 선수가 한꺼번에 달리기 때문에 토너먼트에서는 소트트랙과 같은 선행형과 치열한 작전이 요구된다. 16바퀴를 도는 장거리 경기인 만큼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4바퀴마다 1, 2, 3위로 통과하는 선수에게 5점, 3점, 1점을 주기로 부여된다.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1, 2, 3위 선수에게는 60점, 40점, 20점을 부여하여 종합점수로 순위를 결정한다.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앞선 선수에게 한 바퀴 추월 당하면 실격 처리된다. 2014~2015 애스 스트리트 월드컵에서 이승훈 선수가 초대 멤버인에 올라 2018 평창대회가 과연 베일이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

얼음 위의 체스 남녀 혼성 컬링 Mixed Doubles Curling

컬링은 두 팀이 동글고 날렵한 돌Stone을 굴려 목표지점에 기꺼이 보내는 경기이다. 스톤의 위치 선정과 경로 선택에 전략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음 위의 체스라고도 불린다. 이번에 추가된 남녀 혼성 종목은 4명이 아니라 남자 1명, 여자 1명이 한 팀을 이룬다. 팀원이 출기 때문에 파트너 간 호흡이 더 중요해진다. 한 팀에 던지는 스톤을 8개에서 5개로 줄여 경기가 더 스피드하게 진행된다.

알파인 구성의 모임 알파인스키 국가별 이벤트 Alpine Skiing Nation Team Event

알파인스키는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빠르게 내려가는 경기로, 많은 메달이 걸린 종목이다. 속도가 빠른 순서대로 활강, 슈퍼대회전, 대회전, 회전, 복합으로 구분하는데, 활강 경기는 말 그대로 빠른 속도로 관문을 통과해 결승선에 도착해 시간을 거두는 것으로 평균 시속 100km, 최대 시속 140km에 달한다. 회전 경기는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연속적인 터널로 기운을 통과하는 경기이다. 알파인스키 국가별 이벤트는 250~300m 코스에서 대회전 기운을 이용해 평행 경로로 진행하는데, 기운 간 거리는 회전보다는 길고 대회전보다는 짧다. 남자 2명, 여자 2명이 한 팀을 이루어 16개 국가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순위를 디룬다.

테라로사 하면 가장 자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강릉'이다. 강릉 테라로사: 2002년 자그마한 시골 마을 안에 커 피공장이 문을 열면서 이 두 단어의 조합은 시작되었다. 테라로사는 국내 순수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그 토양이 되어준 강릉을 각별하게 생각한다. 이에 지난해부터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기치 아래 작은 문화 활동들을 펼쳐 가고 있다. 이제 테라로사는 올림픽을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알리는 일을 하려고 한다. 강릉과 평창에는 지금 2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이 문화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작은 손길이나 마 보태어 올림픽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즐기려 한다.

우선, 동계올림픽 역사부터

동계올림픽 이전에 동계 스포츠에 대한 움직임이 먼저 있었다. 1908년 런던올림픽 때 하계 종목 사이에서 처음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열렸고, 1920년 앤트워프올림픽 때는 피겨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가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1912년 스톡홀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동계대회를 따로 열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겨울 스포츠 대회를 열고 있던 터라 IOC가 주도하는 동계올림픽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찬반양론이 맞서는 가운데 1916년 베를린올림픽에서도 피겨와 스피드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노르딕스키를 경기 종목에 포함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이 대회는 제1차 세계대전 여파로 열리지 못했다.

1921년 IOC는 1924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를 프랑스 파리로 결정하면서 올림픽과 별도로 '국제겨울스포츠주간 International Winter Sports Week'을 가지기로 하고, 샘모니를 첫 개최지로 선정했다(샘모니는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몽블랑이 거리 어디에서나 보이는 곳이다). 대회는 11일간 열렸고 16개국 258명의 선수가 참가해 16개 종목이 진행되었다. 여자 종목은 피겨스케이팅이 유일했고, 여자 참가 선수도 고작 10여 명뿐이었다. 1926년 IOC 총회가 이 대회를 동계올림픽으로 명명할 것을 결정. 동계올림픽 제1회는 과거형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1928년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제2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다. 대회가 시작되자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하여 결국 10,000m 스피드스케이팅은 빙판이 녹아 취소되었고, 크로스컨트리 50km 경기는 25°C의 더운 날씨 속에 펼쳐졌다. 1932년 대회는 유럽을 벗어나 미국 레이크플레이스에서 개최되었으나 대공황 여파로 참가 인원이 대폭 줄었다. 4년 뒤에는 독일 가르미슈-파르텐kirchen으로 이어졌고, 1940년과 1944년 대회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무산되었다. 동계올림픽은 1992년 제16회 프랑스 알베르빌 대회까지는 하계올림픽과 같은 해에 열렸으나, IOC가 동계올림픽의 흥행과 관심을 유도하고자 다음 대회를 2년 뒤인 1994년 노르웨이 릴레헴메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이후 동·하계 대회가 2년 주기로 교차해서 열리기 시작하였다.

한국이 처음 참가한 대회는 1948년 프랑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제5회 대회로, 선수 3명, 임원 2명을 파견해 올림픽 무대에 섰다. 1952년 대회는 한국전쟁 여파로 불참했고, 1956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부터 참가를 재개했다.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 대회 때부터였다.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10위권에 들었다. 역대 성적이 가장 좋았던 대회는 5위를 차지한 제21회 캐나다 밴쿠버 대회이다. Ⓜ

정리 이현주(기획)